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세종
함께 만드는 행정수도

세종특별자치시의회

# 보도자료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**제공일자** | 2026. 11. 17.(화) | **사진 · 영상** | 사진(○), 영상(×) |
| **보도일자** | 2026년 11월 17일(화)부터 | | |
| **제 공** |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| **박란희 의원** | ☎044-300-7176 |

##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, “소형화물차 주차 문제, 생존권과 시민 안전 아우르는 상생 대책 마련해야”

- 16일 도시환경위원회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서 실효적 대안 촉구 -

세종특별자치시의회(의장 안신일) 박란희 의원(다정동, 더불어민주당)은 소형 화물자동차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화물차 운전자의 생존권과 시민의 안전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상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.

박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110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"최근 지하주차장 진입이 불가한 소형화물차의 주차 문제는 생계형 운전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될 뿐 아니라, 안전문제와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"고 지적했다.

택배, 이사, 소상공인 생계용 등으로 널리 쓰이는 소형화물차(탑차 등)는 차량 높이 문제로 일부 지하주차장 진입이 불가능하다. 이로 인해 단지 내 지상 주차장이나 이면 도로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

한계를 안고 있으며, 이는 곧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어린이 등 노약자의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.

박 의원은 “단순히 지상 주차를 금지하거나 단속을 강화하는 대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”고 말하며, “운전자들이 마음 놓고 차량을 주차한 뒤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‘소형화물차 전용 공용주차장’을 조성하는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상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한편, 이에 앞서 박 의원은 지난 9일 시의회에서 ‘세종시 소형화물자동차 주차 관련 대책 마련 토론회’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주차 공간 개선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.